

# 新羅 文書木簡의 기초적 검토

- 신 출토 월성해자 목간을 중심으로\*

하시모토 시게루\*\*

I. 머리말	V. 문서목간의 書者
II. 판독문의 제시	VI. 서식의 변화
III. 고대 일본 '前白木簡'과의 비교	VII. 맺음말
IV. 문서목간의 '視覺機能'	

##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의 문서목간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문서목간이란 여러 관청에서 작성된 문서, 기록, 편지 가운데 수발 관계를 알 수 있는 협의의 문서목간을 말한다. 신라 문서목간의 특징이나 시대적 변화를 밝히기 위해 고대 일본의 문서목간인 前白木簡과 비교하는 것을 중시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5801).

본고는 2020년 10월 30일 국립경주박물관 주최 심포지엄 『통일신라 문자의 세계』에서 「신라 문서 목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의 전반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후반부에서 장부 목간으로 추정되는 부산 배산성 목간, 경산 소월리 목간도 같이 다루었지만 본고에서는 생략했다.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이경섭 선생님과 발표문 번역을 도와주신 아라키 준(荒木潤)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교수 / sige1023@yahoo.co.jp

먼저 최근에 출토된 월성 해자 목간의 관독문과 내용을 검토했다. 삼면목간은 지방관인 당주가 왕경에 있는 관인에게 곡물을 보냈다는 내용이며 ‘所白人’은 왕경까지 와서 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신라 문서목간은 일본의 전백목간처럼 구두전달과 관계된다고 생각되며 주로 上申文書로 사용되었다. 한편 전백목간과 달리 발신자나 날짜를 명기한다는 등 차이점도 확인된다. 목간의 형태도 전백목간은 판자형인데 신라 문서목간은 원주형목간이나 다면목간이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문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크기가 큰 것은 통행증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성해자 목간을 쓴 文尺은 남산신성비에 나오는 職名과 똑같으며 지방민이 지방에서 널리 문서행정을 담당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 시대와 통일기 문서목간을 비교해 보면 날짜 표기 서식에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대 일본에서도 보이는 상황이지만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의 율령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주제어

문서목간, 월성해자, 전백목간, 시각기능, 서자, 서식

## I. 머리말

본고는 신라 文書木簡을 검토하여 전체적 특징이나 시기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 목간은 여러 官司가 작성한 목간 가운데 受發 관계를 알 수 있는 목간이라는 뜻이다. 이 정의는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sup>1)</sup> 나라문화재연구소는 목간을 크게 문서·附札·기타의 세 종류로 나눈다. ‘문서’는 여러 官司가 작성한 다양한 문서·기록·관인의 편지 등을 총칭한다. 이 광의의 문서는 다시 서식상 어떤 형식으로 수발 관계가 명기된 ‘협의를 문서’와 수발 관계가 명기되지 않은 ‘傳票·帳簿’로 나뉜다. ‘부찰’은 물자에 붙여진 것을 총칭한다. 조세에 붙여진 ‘荷札’과 물자의 보관·정리를 위하여 붙여진 ‘협의를 부찰’로 나뉜다. ‘기타’는 꺾書·낙서 등이다.

그런데 신라 목간을 위와 같이 분류하면 지금까지 출토된 목간의 대부분이 ‘부찰’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경주 월지(안압지) 목간의 경우, 목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40여 점의 목간 중 절반 정도가 협의의 부찰목간이며, 그중 많은 것은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에 붙인 것이었다.<sup>2)</sup>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245점이 출토된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대부분이 稗나 米 등의 짐에 매달린 하찰이다.<sup>3)</sup> 따라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많은 점수가 출토된 신라 목간은 모두 광의의 부찰이었다. 그리고 신라 목간의 전체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족쇄가 되는 것은 부찰은 월지, 하찰은 성산산성 이외에서 출토된 사례가 드물다

- 
- 1) 奈良文化財研究所, 『藤原宮木簡四 解説』, 2019, 14~15쪽 凡例. 이 분류는 어디까지나 일본 목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한국 목간의 내용에 따른 독자적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거에서는 신라 목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했다.
  - 2) 하시모토 시게루, 『雁鴨池木簡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 2007 ;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하시모토 시게루,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및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0, 2020a.
  - 3) 관련된 논문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간Ⅱ』, 2017 참조.

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시기에 따른 변화나 지역마다의 특징 등을 밝혀내기 어렵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는 문서목간은 최근까지 출토사례가 매우 적었다. 2009년 현재의 정리에 따르면 문서목간으로 확실한 것이 2점, 가능성이 있는 것이 2점, 그리고 기록목간은 3점이다.<sup>4)</sup> 월성 해자 2호 목간처럼 특정한 목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문서목간의 전체적인 성격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잇따라 문서목간이 새로 출토되었다. 하찰목간이 다수 출토된 성산산성에서 문서목간이 몇 점 출토되었고, 특히 218(가야5598)호 목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사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5)</sup> 또한 2015년 이후 월성 해자의 발굴조사에서도 출토되었다. 그 결과 문서목간의 출토지가 성산산성을 비롯한 지방의 유적과 월성 해자, 월지 등 왕경 중심부의 유적 등 다양해졌다. 연대도 대부분이 6~7세기 삼국시대이지만 통일신라기의 목간도 있어 시기적 변화도 검토할 수 있다.

본고는 신라 문서목간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수발관계나 서자, 서식 등에 주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신출토 월성 해자 목간에 한해서 판독문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전체 판독문을 제시한다. 그리고 점수가 늘었다고 해도 아직 1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례가 풍부한 일본 목간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비교하는 것을 중시한다. III장에서 기재양식을 고대일본의 문서목간인 전백목간과 비교하여 특징을 밝혀낸다. IV장에서는 문서목간의 형태에 주목하여 원주형목간과 다면목간에 쓰이는 이유를 검토한다. V장에서는 문서목간을 쓴 사람에 주목하여 동시대 비문 작성자와 비교하여 신라 문자문화의 일단을 살펴본다. VI장에서는 문서목간의

---

4) 李成市, 「韓國木簡研究の現在—新羅木簡研究の成果を中心に」, 工藤元男·李成市編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2009, 210쪽.

5) 최근에 발표된 논문만 제시하면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 가야5598의 검토」, 『목간과 문자』 23, 2019. 이경섭, 2020,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7, 2020 등이 있다.

시기적 변화를 알기 위해 서식, 특히 낱짜를 쓰는 위치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검토해 본다.

## II. 판독문의 제시

내용 검토에 앞서 문서목간의 판독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간행된 발굴보고서나 논문을 의거하되, 일부 글자만 수정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새로 출토된 월성 해자 목간 4점에 대해서는 판독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싶다.

### 1. 신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검토

월성 해자에서 새로 출토된 목간 판독문에 대해서는 전경효<sup>6)</sup> 및 윤선태<sup>7)</sup>의 논문이 있다. 이들 논문을 참조하면서 판독문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해석하고자 한다. 판독을 수정한 근거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뒤에서 검토할 문서 수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해서 제시하도록 한다. 판독문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을 참조해서 만든 것이니 향후 실물 조사 등을 통해 더 보충해야 할 것이다. 판독문 표기는 기본적으로 일본 목간학회의 표기법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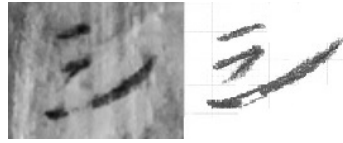
#### 1) 임392(2016)

前  
□小舍敬呼白遣 居生小烏之  
官二言之 此二雖官言庄 √」

6) 전경효,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0, 2018. 판독은 목간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7)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2018.

上端이 파손되었고 下端에 흠이 있는데 오른쪽 일부가 파손되었다. 글자가 한 면에만 있다. 1행 마지막 부분을 전경효와 윤선태는 ‘送’으로 판독하고 밑에 글자가 더 있는 것으로 봤지만, 자형으로 ‘之’로 수정했고(그림1), 그 밑에 컬러사진이나 적외선사진으로는 목흔을 확인할 수 없다.<sup>8)</sup>



〈그림 1〉 ‘之’

이 목간은 ‘□小舍’에게 보낸 문서목간으로 생각된다. ‘前’은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前이 없으면 ‘□小舍’가 발신자인지 수신자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한 것 같다. ‘白遣’을 이두로 보는 해석과 遣을 ‘과견하다’ ‘보내다’의 뜻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sup>9)</sup> 상부 파손으로 전체 문맥을 알 수 없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두로 보면 ‘居生小鳥’의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居生小鳥를 보냈다(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윤선태는 ‘형태적으로는 하찰형의 목간이지만, 목서 내용은 受發 관계가 엮보이는 문서 목간’이라고 지적하여 목서를 흘려 쓰거나 빠트린 글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부찰목간을 폐기하기 전에 습서한 목간으로 추정했다.<sup>10)</sup> 그러나 고대일본의 문서목간에 흠이 있는 사례가 있으며 문서·기록에 관계된 목간도 물품을 進上하거나 청구할 때 등 물품과 밀접하게 관련되면 흠을 찢었다고 한다.<sup>11)</sup> 후술하는 함안 성산산성 186호(가야2654)도 하단에 흠이 있다. 그래서 흠이 있다고 해서 원래 하찰목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목간도 처음부터 문서목간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8) 백두현,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 2018, 281쪽도 단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판독을 제시했다.  
9) 전경효, 앞의 논문(2018), 70쪽은 이두로 보고, 윤선태, 앞의 논문(2018), 96쪽은 ‘과견하다’로 해석했다. 백두현, 앞의 논문, 281~283쪽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  
10) 윤선태, 앞의 논문(2018), 96쪽.  
11) 市大樹, 「飛鳥藤原木簡の諸相」,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460, 479~481쪽.

## 2) 임418(2016) 목간

- 典中大等敬白沙喙及伐漸典前
- 阿尺[ ]
- 急□爲在之
- 文人周公智吉士

사면목간이며 사면에 글자가 있다. 전경효는 상하단 모두 파손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단은 제1면 일부가 파손된 이외는 원형으로 보인다. 제1행 5·6자를 전경효는 ‘赴告’로 판독했지만 자형으로는 윤선대가 판독했듯이 ‘敬白’이 옳다고 생각된다(그림2). ‘白’자는 글자 오른쪽 부분의 목흔이 희미해졌다. 제2행 ‘阿尺’ 이하를 전경효와 윤선대는 ‘山□舟□至□愼白□□’로 판독했지만 목흔이 희미해서 판독이 어려우므로 미판독으로 해둔다.



<그림 2> ‘敬白’

내용은 ‘典中大等’이 ‘沙喙及伐漸典’에게 보낸 문서로 추정된다. ‘及伐漸典’은 이미 지적되었듯이 磨雲嶺碑(568년)에 나오는 ‘及伐斬典’과 같은 것이다. 전경효는 제2행을 ‘阿尺인 山□가 배로 이르러...’로 해석하는데 6세기 신라 인명 표기는 [인명-관등]의 순서가 원칙이니 아척의 인명은 파손된 제1행 하부에 있다고 생각된다.

## 3) 임001(2017) 목간

- 「兮智宋公前別白作□□
- 「米十斗酒作米四斗并十四斗瓮此本
- 「公取□用在之

사면 목간의 삼면에 글자가 있다. 상단은 원형이며 하단은 파손되었다. 제2행 ‘十’은 ‘卅’로 판독되었지만 적외선사진으로는 十으로 보인다.

제3행 ‘用’은 ‘開’로 판독되었지만 用으로 보고 싶다.

‘兮智宋公’에게 쌀을 보낸 문서목간인데 ‘別白’이라는 표현은 6세기 신라 비석에 보이는 ‘別教’와 비교되는 표현이다.

#### 4) 삼면목간<sup>12)</sup>

전경효<sup>13)</sup>

- □年正月十七日□□村在幢主再拜□淚廩典□岑□□
- □<sub>喙</sub>部弗<sub>德</sub>智小舍易稻參石粟壹石稗參石大豆捌石
- □金川一伐上內之 所白人 登彼礼智一尺 文尺智重一尺

하시모토

- □年正月十七日□□村在幢主再拜白□稟典太□<sup>[甘文?] [等?]</sup>
- □□部弗<sub>德</sub>□小舍□稻參石粟壹石稗參石大豆捌石<sup>[喙?] [知?智?] [前?]</sup>
- □□□□上內之 所白人 登彼礼智一尺 文尺智連一尺<sup>[合十五石?]</sup>

#### (1) 판독

삼면목간이며 삼면에 목서가 있다. 파편 3개로 분리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접속 부분의 자획에 결손이 있다. 전경효는 목간 상단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사진으로는 제3면 상단이 원형으로 보인다. 실물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도 위에 더 길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12) 이 목간은 2018년에 출토되었는데 임시 유물번호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전경효, 「경주 월성 해자 출토 삼면목간 소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사업단 제2회 국제학술대회『木簡을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유통과 관리』자료집, 2021을 따라 ‘삼면목간’이라고 한다.

13) 이 목간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공동기획 특별전 도록,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2019, 175쪽에서 판독문만 공개되었고, 전경효, 앞의 논문(2021)에서 내용까지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 자료집 59쪽에 있는 전체 판독문에는 빠진 글자들이 있다. 여기서 제시한 판독문은 56~58쪽의 한 글자씩 판독된 것을 참조해서 수정한 것이다.



이다.

제1면 ‘再拜’ 다음 글자는 남은 자획으로 ‘白’자로 판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글자를 전경효는 ‘淚’로 판독했다. 오른쪽 아래에 大 같은 자획은 있으나 전체적인 자형은 맞지 않고 문장도 잘 통하지 않으니 미판독자로 한다. 그 다음 부분을 전경효는 ‘稟典□岑□□’로 판독했지만 ‘稟典太□(等?)’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稟典太等으로 판독할 수 있다면 『삼국사기』 권 38 직관지에

執事省의 본래 이름은 稟主 혹은 祖主라고도 이른다. 진덕왕 5년(651)에 執事部로 고쳤고, 흥덕왕 4년(829)에 또 고쳐 성으로 하였다. 中侍는 1명으로 진덕왕 5년(651)에 두었다. 경덕왕 6년(747)에 侍中으로 고쳐 삼았다. 관등이 대아찬으로부터 이찬까지인 사람을 임명한다. 典大等은 2명으로 진흥왕 26년(565)에 두었다. 경덕왕 6년(747)에 侍郎으로 고쳐 삼았다. 관등이 나마부터 아찬인 사람을 임명한다.<sup>14)</sup>



<그림 3> ‘白□稟典太□(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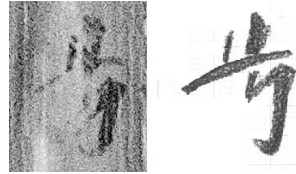
라고 해서 집사성의 원래 이름이 稟主였으니 전대등이 ‘稟典太(大)等’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진만으로 ‘等’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미판독자로 하고 가능성만 제시한다.<sup>15)</sup>

14) 『삼국사기』 권38 직관지 ‘執事省 本名稟主(或云祖主) 眞德王五年改爲執事部 興德王四年又改爲省. 中侍一人 眞德王五年置 景德王六年改爲侍中 位自大阿浪至伊浪爲之. 典大等二人 眞興王二十六年置 景德王六年改爲侍郎 位自奈麻至阿浪爲之’.

15) 후술하듯이 이 관직은 제2행 小舍의 관직으로 추측된다. 稟典太等으로 판독하고 典大等으로 해석하면 직관지에서 임명되는 관등이 나마 이상으로 규정되는 것과 어긋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제2면 ‘部’ 위의 글자는 크게 파손되었지만, 왼쪽에 ‘口’ 같은 자획이 있어 ‘喙’일 가능성이 크다. 그 위에도 목흔 같은 것이 보여 沙喙部나 牟喙部일 가능성도 있어 부명을 단정할 수 없다. 다음 인명 부분도 표면이 결손되어 있다. 전경효는 ‘德’자를 추정한 글자로 하지만 오른쪽 부분에 十四가 확인되므로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글자는 왼쪽에 矢가 있으니 인명어미 知 혹은 智일 것이다.

‘小舍’ 다음 글자를 전경효는 ‘易’으로 보는데 자형으로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小舍’는 목간의 수신자로 추정되며, 문서목간의 수신자 다음에 ‘前’자가 오는 것이 많으니 月에 해당하는 자획이 파손되었다고 보고 ‘前’일 가능성이 있다.<sup>16)</sup>



〈그림 4〉 ‘前?’

제3면 상부는 목흔이 희미하다. 전경효는 ‘金川(인명) 一伐(관등)’로 봤지만 ‘舍十五石’이라는 곡물을 합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sup>17)</sup>

## (2) 내용 검토

‘□□村在幢主’가 문서를 보낸 발신자이다. 인명은 없고 직명만 적혀있다. 촌명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는데 오른쪽에 일부 남은 자획으로는 ‘甘文’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가능성만 제시하고 미판독자로 한다. 당주에 관한 동시대 사료는 단양 적성비(550년쯤)에 ‘鄒文村幢主 沙喙部’

16) 목간 연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관등 小舍 표기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경효, 앞의 발표문(2021), 60~61쪽도 지적하듯이 小舍, 大舍는 6세기 전반의 특징적인 관등표기법으로 울진 봉평리비(524년) ‘小舍帝智’, 천진리서석 원명(525년) ‘大舍帝智’, 영천 청제비 병진명(536년) ‘大舍第’ ‘小舍第’ 등 帝·知·第 같은 어미가 붙여지지만 적성비(550년쯤) 이후에는 어미 없이 大舍, 小舍가 된다. 삼면목간의 글자가 帝·知·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대는 536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17) 6세기 신라에서 수치 합계를 표현할 때 위에서 검토한 목간에 ‘米十斗酒作米四斗并十四斗’로 있듯이 ‘并’으로 표현할 경우와 적성비 ‘舍五人’처럼 舍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명활산성비(551년)에는 ‘并二人’과 ‘舍高十步長十四步三尺三寸’ 둘 다 있다.

導設智 及干支'과 '勿思伐城幢主 喙部 助黑夫智 及干支'가 있다. 거기서는 [지명+당주]인데 본목간은 [지명+채당주]라는 차이가 있다. [지명+재]라는 기재양식은 같은 적성비에 '高頭林城在□主等', 성산 산성 목간218(가야5598)호에 '□城在'라는 사례가 있다.



<그림 5> '□□(甘文?)'

목간 내용에 대해 전경효는 면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봤다. 즉, 제1면을 보고자와 수신자, 제2면을 '部弗德智小舎가 稻 등을 易했다'는 보고 내용, 제3면을 '金川一伐'이 목간을 전달한 사람, '所白人'이 제2면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사람, '文尺'이 문서 기안자로 봤다. 그러나 면별로 내용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2면 小舎에 대해서 '易'의 주어로 봤는데 판독이 확실하지 않고, 易으로 판독한 경우의 내용 해석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글자를 어떤 동사로 판독할 때에 왜 이 소사가 지방에 있는지, 이 소사가 지방에서 곡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왜 당주가 중앙에 보고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 소사를 제2면의 주어로 보기는 어렵고 제1면에서 이어져 '稟典太□'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稟典太□ □□(喙?)部 弗德□(知?智?) 小舎  
관직명 부명 인명 관등

와 같이 중고기 비석에 보이는 인명표기 방식대로 적혀있다고 보고 싶다. 이 이해가 맞다면 이 인물이 목간의 수신자가 된다. 발신자인 당주가 직명만으로 간략하게 표기된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에 전경효는 제3면 '金川一伐'이 목간을 보고한 사람으로 봤다. 그런데 상술했듯이 곡물의 집계일 가능성이 있으며 내용이 제2면에서 이어져 '벼를 비롯한 곡물을 바쳤다(上内之)'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所白人’을 전경효는 제2면의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며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강조하고자 했거나 내용 신빙성 여부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당주가 보고하기 위해 원래 보고자까지 굳이 썼는지는 의문이다. ‘소백인’은 이 목간과 함께 제2~3면에 기재된 벼를 비롯한 곡물을 가지고 왕경까지 가져와서 ‘稟典太□’에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할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文尺’은 이 목간을 쓴 사람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발신일 : □年正月十七日

발신자 : □□村在幢主

수신자 : 稟典太□ □□部 弗德□ 小舍

내 용 : 稻 등 곡물을 바친다(上內之)

전달자 : 所白人 登彼礼智 一尺

서 자 : 文尺 智連 一尺

로 된다.<sup>18)</sup> 내용은 문서목간이지만 곡물과 같이 이동한 것이다.<sup>19)</sup>

---

18) 다만, 이렇게 이해한 경우에도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주가 ‘稟典太□’인 개인을 수신자로 해서 곡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곡물의 구체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당주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니 향후 더 검토할 예정이다.

19) 이 목간은 고대일본에서 물품을 進上할 때 사용된 物品進上狀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품진상장은 [진상자+진상 문언+품목+수량+날짜+발급자]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물품을 진상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찰과 공통되지만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진상장은 품목, 수량의 다소와 관계없이 운반 한 번에 한 점만 작성되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진상했는지를 보고하는 문서이고 진상된 후에 구멍을 뚫어 다른 목간들과 묶어서 진상 기록으로 이차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하찰은 물품 한 점에 한 점씩 작성되어 최종소비지까지 물품에 매달린 채 사용되었고 이차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市大樹, 『物品進上札と貢進荷札』, 藤田勝久·松原弘宣 편,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汲古書院, 2011).

## 2. 문서목간 전체 관독문

이상 신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관독문과 내용을 검토했다. 나머지 문서목간과 함께 관독문을 제시한다.<sup>20)</sup> 관독문은 기본적으로 보고서나 기존 논문에 따르도록 하고, 필자의 수정은 부분적으로만 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하여 각 목간에 번호(①②…)를 부여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이 목간들을 번호로 제시한다. 제원의 단위는 mm이며 길이×폭×두께이다.

목간의 자세한 연대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지만 본고는 문서목간을 대략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하지 않겠다. 월지 목간만 통일기의 것이고, 그 외 목간들은 중고기의 것이라는 것만을 전제로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월성해자목간

기존에 출토된 것<sup>21)</sup>(호수는 보고서. 괄호 안은 『韓國의 古代木簡』<sup>22)</sup>의 도판 번호)

#### ① 2호(149호)<sup>23)</sup>

---

20) 여기서 제시한 목간 이외에도 문서목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성산 산성 184(가야2640)호에는 한쪽 면에 ‘此負刀寧負盜人有’라고 적혀있어 무엇인가의 보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시모토 시게루, 「월성해자 신 출토 목간과 신라 外位」, 『목간과 문자』 24, 2020b 에서 다룬 월성 해자 임069(2016) 목간은 지방민의 외위 승진에 관하여 기록한 목간인데 지방 관청에서 작성해서 位和府로 제출한 문서목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면을 관독하기 어려워 확실하지 않다. 본고는 수발 관계가 분명한 목간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21) 관독문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塚子發掘調査報告書Ⅱ－考察』, 2006. 윤선태, 앞의 논문(2018) 등을 참조했으나 적외선사진을 통하여 필자가 수정한 부분이 있다.

2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 2004.

23) 2호 목간은 그 동안 제일 활발하게 논의된 문서목간이며 관련논문이 많다. 관련논문을 다 제시하지는 못 하니 가장 최근의 논문인 이영호, 「月城塚子 2號 木簡에 보이는 尊稱語 ‘足下’에 대하여」, 『영남학』 71, 2019만 제시해둔다. 万引으로 관독된 부분은 万拜, 再拜로도 관독된다.

- [了?]
- 「大鳥知郎足下万引白□ 」
-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
-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
- 「使□ 」
- [官?]

189.5×12×12

② 10호(148호)

- 「寺典大宮土等敬白[苑]典前老  
場□ 」
- 「大□女寺□可□□□七 」
- 「□素□小□□□□□時四 」
- 「田□此□□□□□□日□ 」
- 「□還不后斤□ 」
- 「 走□□□ 」

205×33(직경)

③ 12호(153호)

- 「四月一日典太等教事 」
- 「勻舌白故爲□教事□□ 」
- 「□□□□□□□□ 」

244×51(직경)

새로 출토된 것

④ 임392(2016)

前

□小舍敬呼白遣 居生小鳥之  
官二言之 此二雖官言庄 √」

(192)×39×8

⑤ 임418(2016)

- 典中大等敬白沙喙及伐漸典前
- 阿尺 [ ]
- 急□爲在之
- 文人周公智吉士·

(259)×25×22

⑥ 임001(2017)

- 兮智□公前別白作□□
- 米十斗酒作米四斗并十四斗瓮此本
- 公取□用在之

(150)×21×22

⑦ 삼면목간

- □年正月十七日□□村在幢主再拜白□稟典太□  
[甘文?] [等?]
- □□部弗德□小舍□稻參石粟壹石稗參石大豆捌石  
[喙?] [知?智?] [前?]
- □□□□上內之 所白人 登彼礼智一尺 文尺智連一尺  
[合十五石?]

380×51×38

성산산성 목간<sup>24)</sup>

⑧ 186(가야2654)호

- 「六月中□多馮城□□村主敬白之 烏□□成行之 √」  
[者?]
- 「□□智一伐大□□也 功六□大城從人士六十日 √」
- 「□去□石日□□□□更□荷□□ √」  
[走?] [率此?] [秀?]
- 「卒日治之人□人烏馮城置不行遣之白 √」  
[此?]

250×34×28

⑨ 218(가야5598)호

24) 판독문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Ⅱ』, 2017 에 의거한다.

- 「三月中 眞乃滅村主 懼怖白」
- 「□城在弥卽余智大舍下智前去白之」
- 「卽白 先節六十日代法稚然」
- 「伊毛羅及伐尺□言□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案?]

344×10~13×16~19

이성산성 목간

⑩ 『한국의 고대목간』118호<sup>25)</sup>

- 「戊辰年正月十二日明南漢城道使
- 「須城道使村主前南漢城城火□□
- 「城上蒲黃去□□□□賜□

(150)×13×9

월지(안압지) 목간

⑪ 보고서 1호<sup>26)</sup>

- 洗宅白之 二典前四□子頭身沐浴□□木松茵
- □迎□入日□□
- 十一月廿七日典大舍 思林

318×28×15

본고는 이하 문서목간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신과 수신에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25) 판독문은 이성시, 앞의 논문, 210쪽에 의거한다.

26) 판독문은 하시모토 시게루, 앞의 논문(2020a)에 의거한다.



<표1> 신라 문서목간의 수발 관계 정리

	날짜	발신자	「白」	수신자	「前」	기타 인명
①				大烏知郎	足下万引白	
②		寺典大宮士等	敬白	[苑]典	前	
③	四月一日	典太等	教事			
④				…□小舍	前敬呼白	居生小烏
⑤		典中大等	敬白	沙喙及伐漸典	前…	…阿尺 文人周公智吉士
⑥				兮智□公	前別白	
⑦	□□年 正月十七日	□□村在幢主	再拜白	□稟典太□□□ 部弗德□小舍	□	所白人登彼礼智一尺 文尺智連一尺
⑧	六月中	□多馮城□□村主	敬白之			
⑨	三月中	眞乃滅村主	懼怖白	□城在弥即尔 智大舍下智	前去白之	伊毛羅及伐尺
⑩	戊辰年 正月十二日明	南漢城道使…		…須城道使 村主	前	
⑪	十一月廿七日 (※제3면)	洗宅	白之	二典	前	典大舍思林

※ 표 안의 ‘…’는 목간의 결손 부분

### Ⅲ. 고대 일본 ‘前白木簡’과의 비교

신라 문서목간에 관해서는 일본 고대의 前白木簡과의 공통점이 자주 지적된다.<sup>27)</sup> 전백목간이라는 것은 ‘某前白’(某가 前的 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것으로(「白」字는 「申」「請」「牒」「啓」「解」字 등이 기록되기도 함), 일본에서 7세기에 다양하게 사용된 上申文書 목간'이다.<sup>28)</sup> 일본의 전백목간을 몇 점만 예시한다.

27) 일찍이 李成市,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1997, 244쪽이 ⑩ 이성 산성 목간과 전백목간의 공통점을 지적했고, 윤선대,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137~138쪽이 ① 월성 해자 목간의 ‘某足下白’ 형식이 일본의 전백목간의 직접적인 연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8) 市大樹, 「일본 7세기 목간에 보이는 한국목간」, 『목간과 문자』 22, 2019, 115쪽.

飛鳥京 터 원지유구 목간(7세기 후반)

- 大夫前恐万段頓首白 <sup>[僕?]</sup> □眞乎今日國
- 下行故道間米无寵命坐整賜

293×31×6

藤原宮 525호 목간(7세기 후반)

- 法愍師前 小僧吾白 啓者我尻坐□止[
- 僧□者 五百□

297×33×5

平城宮 1926호 목간(7세기 말~8세기 초)

- 關々司前解近江國蒲生郡阿伎里人大初上阿□勝足石許田作人 <sup>[伎?]</sup>
- 同伊刀古麻呂 大宅女右二人左京小治町大初上笠阿曾弥安戶人右二  
送行乎我都 鹿毛牡馬歲七 里長尾治都留伎

656×36×10

전백목간의 특징은 수신자 뒤에 ‘大夫+前’ ‘法愍師+前’처럼 ‘前’을 사용하는 점이다. 이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문서목간과 공통된다.<sup>29)</sup>

그런데 이 전백목간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는 口頭傳達과의 관계가 주목되어 왔다. 애초에는 전백목간은 구두전달을 문서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sup>30)</sup> 그러나 일본 각지에서 일정한 양식에 따른 전백목간이 발견된 결과 구두전달을 그대로 문자화한 것이 아니라 7세기 단계에 이미 문서 양식으로 정형화되고 보급된 것으로 이해되었다.<sup>31)</sup> 다만 구두전달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 목간의 기재 내용을 구두로 보완하는 등

29) ①만 前 대신에 足下가 사용되는 점이 특이하다. 足下에 대해서는 이영호, 앞의 논문.

30) 早川庄八, 「公式様文書と文書木簡」, 『木簡研究』 7, 1985 ; 『日本古代の文書と典籍』, 吉川弘文館, 1997.

31) 鐘江宏之, 「口頭傳達と文書·記録」, 『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6 言語と文字』, 岩波書店, 2006.

문서에 의한 전달과 구두에 의한 전달이 서로 보완하면서 기능했다고 생각된다.<sup>32)</sup> 이러한 이해는 신라 문서목간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참고될 것이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일본 7세기까지의 문서목간은 전백목간과 같은 上申의 사례는 많이 확인되는 한편, 下達의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상신할 경우는 목간 등 쓰는 것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명령은 구두만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sup>33)</sup> 신라 문서목간도 ③의 ‘典大等敎事’는 하달일 것이지만, 그 외는 상신 혹은 平行 문서로 생각되므로, 신라에서도 하달은 구두가 기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4)</sup>

이처럼 전백목간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신라 문서목간과 공통점이 있어 참고된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다.

전백목간의 특징에 관하여 市大樹는 (a) 수신자가 머리 부분에 적힌다, (b) 수신자는 지위·존칭·관직이 일반적이며 특히 ‘大夫’와 같은 보통명사가 많다, (c) 발신자는 자주 생략된다, (d) 날짜는 거의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sup>35)</sup> 그리고 월성 해자에서 새롭게 출토된 ④⑤⑥의 사례

32) 市大樹, 앞의 논문(2010), 466~469쪽.

33) 渡辺晃宏, 「木簡から万葉の世紀を読む」, 『奈良時代の歌びと』, 高岡市万葉歴史館叢書20, 2008.

34)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왕명을 하달하는 ‘敎事’를 새긴 중고기 석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는 정보전달에서 구두, 목간, 종이를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했는지가 과제가 되어 있는데, 신라에서는 그것에 석비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일본의 多胡碑(711년)는 다호군을 세운 공적을 顯彰한 것으로 ‘弁官符’로 시작되는 문서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군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 임관되는 의례 중에서 구두로 전달된 내용을 나중에 기록화하여 석비에 새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鐘江宏之, 앞의 논문(2006), 103~106쪽). 한편 신라의 석비는 인물의 직명·부명·관등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니 구두만으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도 중성리비의 ‘白口’, 냉수리비의 ‘白’으로 석비 내용이 현지인에게 구두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橋本繁, 「六世紀新羅における識字の広がり」, 榎本淳一외편 『中國學術の東アジア傳播と古代日本』, 勉誠出版, 2020). 왕의 敎事を 구두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석비를 세운 것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35) 市大樹, 「黎明期の日本古代木簡」,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94, 2015, 92쪽.

와 비교하여 공통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前白 목간과 한국의 前白 목간과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라고 평가했다.<sup>36)</sup>

그러나 (a)(c)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11점 중 8점에는 발신자가 명기되어 있다. 나머지 3점 중 ④는 상단이 결실되어 있어 원래는 발신자가 적혀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대 일본의 전백목간과 달리 신라 문서목간은 발신자를 명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7)</sup> 또 발신자 표기는 典大等, 幢主, 村主, 洗宅 등 관직이나 관청명만 적는 특징이 있다. 한편 (b)수신자 표기에 관하여 ②⑤⑩⑪은 관직 혹은 관청인 점에서 전백목간과 공통된다. 그러나 ④⑥⑦⑨는 구체적인 인명으로 되어 있고, 특히 ⑦⑨는 직명, 관등까지 상세히 적혀있어 6세기의 신라 비문과 공통된 기재 형식이다. ⑦⑨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d) 날짜에 관해서도 전백목간에서는 거의 기재되지 않으나 신라 문서목간은 11 사례 중 6 사례에서 명기되었다. 市大樹는 신라 목간에 관하여 오래된 것은 날짜를 적지 않았으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쓰게 되는 시대적 변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같은 월성 해자 목간에 날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 연대에 따른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sup>38)</sup>

이상과 같이 그동안 신라의 문서목간과 일본 고대의 전백목간에는 공통점이 강조되어 왔으나, 차이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6) 市大樹, 앞의 논문(2019), 115~120쪽.

37) 일본 전백목간도 시대가 내려가 730년대 경이 되면 발신자, 수신자라는 순서로 기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율령에 의한 서식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渡辺晃弘, 앞의 논문, 19~21쪽).

38) 날짜 표기법을 보면 ‘~月中’이라는 것(⑧⑨), 날짜까지 적는 것(③⑦⑩), 또한 시간대로 보이는 말이 있는 것(⑩)이 있어 다양하다. 이러한 양상은 6세기 신라 비석과 공통된다.

#### IV. 문서목간의 ‘視覺機能’

이 장에서는 문서목간의 형태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전백목간은 다소 예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늘고 긴 판자형인 이른바 ‘단자쿠(短冊)형’이다. 한편 신라 문서목간은 판자형은 없고 多面木簡 혹은 圓柱形木簡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sup>39)</sup> 왜 신라 문서목간은 다면목간 혹은 원주형목간을 사용했을까. 물론 글을 쓰기 위해 서사할 면적을 늘린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목간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있는데<sup>40)</sup> 그런 판자에 문서를 쓴 예가 하나도 없다. 문서목간을 다면목간이나 원주형목간에 쓰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 여기서는 목간의 ‘視覺機能’에 주목하고자 한다. 목간의 시각기능이라는 포착 방법은 중국 고대사 연구자인 富谷至가 제기한 것이다.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한 문서간을 ‘知覺簡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역할을 지니는 간을 ‘視覺木簡’으로 포착한다.<sup>41)</sup> 이러한 방법은 한국 목간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며 예전에 『논어』목간을 검토한 바가 있다.<sup>42)</sup> 市大樹도 일본 목간이 지니는 ‘시각기능’을 강조하고,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적 측면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3)</sup>

원주형목간에 관해서는 馬場基가 특수한 용도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②③과 본고에서는 제시하지 않던 월성 해자 11호(152호) 목간을

39) 윤선태, 「한국 다면목간의 발굴 현황과 용도」, 『목간과 문자』 23, 2019, 80쪽도 신라에서는 다면목간이 관인이나 관청 간의 문서행정을 지탱한 문서목간이나 장부목간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40) 예를 들어 부산 배산성 목간은 폭 6cm에 3행으로 썼고 신출토 월성해자 목간 입069(2016)도 폭 5.1cm에 3행으로 썼다.

41) 富谷至, 『文書行政の漢帝國—木簡·竹簡の時代』,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42) 하시모토 시게루, 「한국에서 출토된 '논어'목간의 형태와 용도」,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하시모토 시게루, 「시각목간(視覺木簡)의 정치성」, 한국목간학회 편 『문자와 고대 한국1 기록과 지배』, 주류성, 2019.

43) 市大樹, 「日本古代木簡の視覺機能」, 角谷常子編 『東アジア木簡學のために』, 汲古書院, 2014. 市大樹, 「木簡の視覺機能という考え方」, 『古代文化』 70-3, 2018.

포함한 3점이, 첫째 글자를 기재하기 위한 면을 마련하지 않았고, 둘째 아래 끝부분은 각 방면에서 칼을 넣어서 꾸미고, 셋째 아랫부분에 줄기(節)가 있어 형태가 어색하고, 넷째 전체 길이가 20cm를 조금 넘고, 다섯째 출토지점이 가깝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왕이나 왕권의 신변에 가까운 곳에서 음聲에 의한 의사소통을 문자화하고 전달한 목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44)</sup>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국왕이나 왕권의 신변에 가까운 곳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원주형목간에 문서를 쓴 것은 확실할 것이다.<sup>45)</sup>

그러면 다면목간에 문서목간을 쓴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백목간은 상신할 때 사용되는 小道具로서의 의미가 있었다는 견해이다. 전백목간 자체에는 최소한의 내용밖에 기재되지 않았고, 목간만으로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使者가 구두로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8세기가 되면서 문서목간을 전달하는 사자의 이름을 목간에 명기한 예가 늘어나는데, 그러한 보충설명을 하는 사자인 것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sup>46)</sup>

신라 문서목간으로 다면목간이 사용된 것도 기재 내용을 구두로 보충하는 사자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도구의 역할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⑦에는 ‘所白人 登彼礼智 一尺’이 있는데, 상술했듯이 이 인물은 곡물과 함께 목간을 지참하고 왕경까지 와서 수신자에게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 수신자는 이 다면목간이 문서목간임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신자는 목간을 참조하면서 소백인의 구두 설명을 듣는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즉 신라 문서목간은

44) 馬場基, 「木簡の作法と一〇〇年の理由」, 『日本古代木簡論』 吉川弘文館, 2018, 227~233쪽.

45) ③‘典太等教事’에서 하달의 경우는 원주형, 상신의 경우 다면목간으로 가려서 쓴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으나 ②에서 부정된다.

46) 市大樹, 앞의 논문(2014), 159~161쪽. 그리고 川尻秋生, 「使者と文書」, 新川登龜男 편 『日本古代史の方法と意義』, 勉誠出版, 2018도 사자의 이름이 문서에 있는 것은 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의 기능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면목간이나 원주형목간에 기재하는 것이 ‘作法’<sup>47)</sup>(규칙이나 관습)이었던 것이 아닐까.

더욱이 이러한 시각목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⑦은 현존 길이 38cm, ⑨는 완형으로 34.4cm의 대형목간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또 수신자에 관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⑦⑨만 인명을 직명이나 관등까지 세세하게 적었다. ⑦⑨만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유는 무엇일까.

⑦은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것인데, 발신자는 지방의 ‘某村幢主’이며, 쓴 사람인 ‘文尺’도 외위 ‘一尺’이니 이 목간이 지방의 어느 村에서 왕경으로 보내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⑨도 ‘眞乃滅村主’로부터 ‘□城’(성산 산성?)에 있는 왕경인에게 보내온 것으로 둘 다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목간이 통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맡았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일본의 문서목간은 過所(통행증)로서 기능했을 경우는 60cm 정도나 되는 대형 목간에 기재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니이가타현(新潟縣) 하치만바야시(八幡林)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은 郡司가 발령한 명령인 郡符 목간이며 사람의 소환에 관한 내용으로 58.5cm의 크기를 가진다. 앞서 제시한 평성공 1926호 목간은 ‘關々司’에게 통행 허가를 요구한 과소 목간인데, 역시 65.6cm의 크기가 있다. 이동할 때 지참한 목간을 왜 일부러 불편하게 긴 것으로 했느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으나, 적당한 이유가 있는 이동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형 목간이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sup>48)</sup>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면 ⑦⑨가 큰 목간을 사용한 것도 통행증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신자를 자세히 기재한

47) ‘목간의 작법’이라는 포착 방법은 馬場基, 「木簡の作法」論から東アジア木簡學に迫るために, 『日本古代木簡論』, 吉川弘文館, 2018 참조. 목간의 작성으로부터 폐기까지를 사람과 목간의 관계로 총체적으로 포착하려는 시각, 문제의식이며 목간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율령법을 비롯한 법령, 다양한 관습, 전달 대상자와의 정보와 연락에 관한 공통적 이해, 무효화의 절차 등 다양한 조건이 배경에 필요했음을 지적한다.

48) 市大樹, 앞의 논문(2014), 152~153쪽.

것도 이동하는 길에서 제삼자가 이 목간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 V. 문서목간의 書者

이 장에서는 6세기 비문과 비교하면서 문서목간의 서자를 검토한다. 6세기 신라 비문에 보이는 立碑擔當者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이들 입비담당자를 보면 6세기 초에 중성리비나 봉평리비를 쓴 사람은 왕경인이었고 지방민이 비문을 쓴 사례는 없다. 적성비에서 처음으로 ‘석서입인’으로 입비를 담당할 지방인이 확인되고, 6세기 후반에는 명활산성비의 ‘書寫人’, 오작비의 ‘文作人’, 남산신성비의 ‘文尺’ ‘書尺’처럼 확실히 지방민이 비문을 쓴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문서목간의 서자를 명기한 것은 월성 해자 목간의 ⑤ ‘文人’과 ⑦ ‘文尺’뿐이다. 먼저 ⑤ 文人에 대해서 전경효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6년(545) 7월조의

이찬 異斯夫가 아뢰기를, “國史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잘잘못을 만대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기고, 대야찬 居柒夫 등에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sup>49)</sup>

라는 기사의 ‘文士’와 연결해서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집단이며 역사를 편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원되었다고 했다.<sup>50)</sup> 그러나 문인을 그러한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봉평리비와 적성비의 ‘서인’, 명활산성비

49)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6년 7월조 ‘伊滄異斯夫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滄居柒夫等, 廣集文士, 俾之修撰.’

50) 전경효, 앞의 논문(2018), 72쪽.



<표2> 6세기 신라 비석의 입비담당자<sup>51)</sup>

	자료명	役名	職名	출신지	인명	관등	등급		
501	중성리비	典書		(牟旦伐喙)	与牟豆				
524	봉평리비	書人	悉支軍主	喙部	□夫智	奈麻	11		
					牟玆斯利公	吉之智	14		
				沙喙部	□文	吉之智	14		
				喙部	述刀	小烏帝智	16		
525	천전리서석 (원명)	作書人		沙喙部	牟利智	小烏帝智	16		
				喙部	博士				
550 경	적성비	書人 石書立人		喙部	□□□	□□	?		
				非今皆里村	□□	□□	○		
				□□	□□智	大烏	15		
551	명활산성비	書寫人		(烏大谷)	須欣利	阿尺	⑪		
578	오작비	文人		(烏玆叱只村)	壹利兮	一尺	⑨		
591	남산신성비			(郡上)	文尺	(奴舍村)	□文知	阿尺	⑪
				(城徒上)	文尺	(阿良城)	竹生次	一伐	⑧
				(郡中上人)	文尺	(沙尸城)	美叱□之	一伐	⑧
				(作上人)	文尺	(阿大兮村)	得毛□之	一尺	⑨
				(里作上人)	文尺	(喙部)	仇□	小舍	13
				[ ]	[ ]	[ ]	[ ]古	一伐	⑧
				[□上□]	書尺	[ ]	夫[ ]	[ ]	○
				[ ]	[ ]	[ ]	[ ]	[ ]	○
(城徒上人)	文尺	(?)	一利	上千	⑥				
(郡上人)	文尺	生伐	只次支	一伐	⑧				
(城徒上人)	文尺	伊回村	□次兮	阿尺	⑪				

※ '등급'의 숫자는 경위, ○숫자는 의위

51) 이 표는 橋本繁, 「朝鮮半島古代の石碑文化」, 小倉慈司·三上喜孝 편『古代日本と朝鮮の石碑文化』, 朝倉書店, 2018c, 43쪽의 표를 수정한 것이다. 각 비문의 이해는 橋本繁, 「浦項中城里碑の研究」, 『朝鮮學報』 220, 2011. 하시모토 시게루, 「중고기신라 축성비의 연구」, 『동국사학』 55, 2013. 橋本繁, 「戊戌塙作碑釋文の再檢討」,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94, 2015. 橋本繁, 「蔚珍鳳坪里碑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 20, 2018a. 橋本繁, 「蔚州川前里書石原銘·追銘にみる新羅王權と王京六部」, 『史滴』 40, 2018b 에 의한다.

의 ‘서사인’, 오작비의 ‘문작인’과 공통되어 ‘글을 쓴 사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경효가 지적하듯이 ‘周公智’라는 이름이 중국 고대의 성인인 周公에 유래한 것이었다면,<sup>52)</sup> 그 당시 신라 왕경에서 목간의 서자들이 어느 정도 학문적 지식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목간의 문인을 학문적 집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에 ⑦의 문척에 대해 살펴보자.

문척이라는 표기는 남산신성비의 입비담당자와 똑같다. 그런데 남산신성비의 문척은 그 이전의 서인이나 서사인, 문인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sup>53)</sup> 남산신성비는 군 밑의 성·촌을 단위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축성을 담당하게 한 기록인데 문척은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군과 성·촌에 반드시 따로 있었다. 즉 군과 성·촌에 각각 글자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산신성비 이전의 서인 등은 비문의 글자를 쓰는 것을 담당했다는 임시적인 역할을 뜻하는 역명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남산신성비의 문척은 단순히 비문을 세울 때의 역할이 아니라 항시적인 직명으로 생각된다. 6세기 말에는 군이나 성·촌에서 지방민이 글자를 쓰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⑦ 목간은 그러한 지방의 문척이 문서목간을 쓴 확실한 사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술했듯이 문척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소백인도 지방민이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당주가 왕경으로 물자를 보낼 때 짐과 같이 보낸 문서목간을 쓴 사람, 그리고 왕경까지 짐을 가지고 와서 구두로 보고한 사람도 다 지방민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왕경에서 파견된 당주 휘하에 지방민 관리가 있었던 사례로는 적성비에 ‘勿思伐城幢主使人 那利村 (이하 결실)’이 있다. 신라 지방의 행정실무를 지방민이 널리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54)</sup>

52) 전경효, 앞의 논문(2018), 72~73쪽. 市大樹, 앞의 논문(2019), 121~122쪽은 周公智가 중국 출신이었을 가능성에 언급한다.

53) 이하 남산신성비의 이해는 하시모토 시게루, 앞의 논문(2013) 참조.

54) 지방민의 외위 승진에 대해 기록한 임069(2016) 목간도 문척이 작성한 가능성이 크다(하시모토 시게루, 앞의 논문(2020b), 246쪽).

## VI. 서식의 변화

마지막으로 문서목간의 시기적 변화를 검토한다.

윤선태는 월성 해자 목간 ①과 월지 목간 ⑪을 비교하여 전자에서 <수신자(-발신자)>라는 순서이었던 것이 후자에서는 <발신자-수신자>라는 순서로 변화하고 게다가 문서작성 시점과 담당자를 말미에 기재한 것은 당 公式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sup>55)</sup> 그러나 문서목간의 출토사례가 늘어난 결과,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고기부터 <발신자-수신자>라는 서식이나 문서작성자를 말미에 기재하는 사례가 있어서 통일을 전후한 변화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날짜 위치에 관해서는 윤선태가 지적한 변화가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는 한 중고기 문서목간(③⑦⑧⑨⑩)의 날짜가 예외 없이 머리 부분에 기재되는 한편 통일기 문서목간(⑪)은 말미에 기재되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일본 목간에 관해서도 701년의 大寶律令을 전후하여 서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문서목간은 7세기에 전백목간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8세기에는 대보령에 규정된 서식에 따른 다양한 문서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sup>56)</sup> 그리고 날짜 위치가 7세기까지는 머리 부분에 기재한 것이 8세기가 되면서부터 말미에 기재하게 되었다.<sup>57)</sup> 이러한 날짜 위치 변화는 墓誌銘이나 鐘銘,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하찰목간에도 널리 확인된다(밑줄은 필자).

55) 윤선태,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2008.

56) 다만 전백목간은 대보령 이후에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라, 적어도 8세기 전반까지는 목간의 사례가 있고, 정창원 문서에는 762년의 것도 있다고 한다. 공식령에 규정된 문서가 보급되었더라도 전백목간과 같은 형태는 기층으로 남아 있었다(市大樹, 앞의 논문(2010), 460쪽).

57) 岸俊男, 「木簡と大寶令」, 『日本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 1988.

藤原宮 147호 목간(697년)

- 丁酉年若狹國小丹生評岡田里三家人三成
- 御調塩二斗

148×16×2

藤原宮 451호 목간(709년)

「▽丹波國加佐郡白藥里大贅久已利魚腊一斗五升和銅二年四月▽」

329×26×4

이러한 서식 변화에 대하여 鐘江宏之는 7세기 단계에서는 한반도를 경유한 지식을 사용하면서 해온 방법을 8세기에는 동시대 당의 방법으로 바꾸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 현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sup>58)</sup> 즉 7세기 단계의 왜는 중국화 혹은 唐風化를 의식하지 않았고, 백제 멸망까지는 ‘백제화’, 신라와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는 ‘신라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대보울령 준비단계인 696년이 되어야 비로소 당을 향하여 ‘중국화’되어 갔다고 한다.<sup>59)</sup> 大隅清陽도 7세기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淨御原令) 단계는 魏晉南北朝로부터 隋 대까지의 울령제를 한반도를 경유하여 받아들였고, 대보령에 이르러 비로소 당령의 체계를 逐條적·체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sup>60)</sup> 양자의 견해에는 차이점도 있으나 일본이 울령제를 수용하는 과정을 7세기에 한반도의 영향이 강했던 단계와 대보울령 이후 당의 영향이 강했던 단계로 나누는 점에서 일치한다. 대보울령을 전후한 목간 서식의 변화는 이러한 울령제 수용과 관련된다.

그러면 신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

대보령에 따른 일본 목간의 변화를 지적한 岸俊男은 같은 논문에서

58) 鐘江宏之, 앞의 논문(2006).

59) 鐘江宏之, 「『日本の七世紀史』再考—遣唐使から大寶律令まで」, 『學習院史學』 49, 20 11.

60) 大隅清陽, 「大化改新論の現在—律令制研究の視角から」, 『日本歴史』 700, 2006. 大隅清陽, 「大寶律令の歴史的位相」, 大津透 편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大隅清陽, 「これからの律令制研究—その課題と展望」, 『九州史學』 154, 2 010.

신라의 날짜 표기 변화에 관해서도 정리했다. 그것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날짜를 머리 부분에 기재하는 사례는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904년의 松山村大寺鐘까지 계속 볼 수 있다. 한편 날짜를 말미에 기재하는 것은 771년 聖德大王神鐘에서 비로소 나타나지만 8세기는 이 사례 뿐이고, 855년 昌林寺 無垢淨塔誌 이후가 되어야 계속 보이게 된다. 또한 말미에 날짜를 기재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당 연호를 사용하는데, 당 연호를 사용해도 머리 부분에 기재한 것도 있다.<sup>61)</sup>

현재로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통일기에 날짜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라에서는 일본처럼 어떤 계기로 문서 서식이 단번에 변화한다는 명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9세기 후반에는 날짜를 말미에 쓰게 되었다. ⑪ 월지 목간의 구체적인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sup>62)</sup> 이러한 서식 변화가 문서목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날짜 위치가 일본에서는 701년의 대보율령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변화한 한편 신라에서는 9세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변화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신라와 일본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율령제’ 수용의 차이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법령 법전인 대보율령 제정을 계기로 모범의 대상을 백제·신라에서 당으로 바꾸었다. 한편 신라에서는 당의 제도도 수용했으나 종래의 제도를 계승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일본과 신라의 율령수용 방법의 차이가 이러한 문서 양식의 수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날짜 위치라는 얼핏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이지만 신라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61) 岸俊男, 앞의 논문(1988), 242~246쪽.

62) 월지 목간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8세기 중엽이라고 하지만 모든 목간을 그렇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하시모토 시게루, 앞의 논문(2020a), 229~230쪽 참조. 그리고 월지에서 출토된 부찰목간은 예외 없이 머리 부분에 날짜가 기재되었고 간지년과 당 연호 둘 다 사용되었다.

## VI. 맺음말

본고는 근년에 출토된 문서목간을 중심으로 서식이 공통된 고대 일본의 전백목간과 비교하면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신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관독문을 검토하여 특히 삼면목간의 수발관계를 새로 밝혔다. 삼면목간은 지방관인 당주가 왕경에 있는 관인인 稟典太□~小舎에게 벼를 비롯한 곡물을 보냈을 때 붙인 문서목간이며 ‘문척’이 목간을 쓴 사람이고 ‘소백인’이 이 목간을 직접 가지고 와서 보고한 것으로 봤다.

III장에서 고대일본의 전백목간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라 문서목간도 구두전달과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상신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백목간과 신라 문서목간 사이에는 발신자나 수신자의 표기법, 날짜 표기 등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IV장에서는 문서목간이 원주형목간과 다면목간에 쓰이는 것에 주목하여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사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도구’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특히 대형 다면 목간의 사례는 장거리 이동을 위하여 통행증의 역할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V장에서는 문서목간을 쓴 사람들에 주목하여 동시대 비문 입비담당자와 비교하여 신라 문자문화의 일단을 살펴봤다. 해자 목간을 쓴 문척은 지방민이 지방에서 문서행정을 널리 담당할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VI장에서는 문서목간의 날짜 위치에 주목했다. 삼국시대에 모두에 쓴 것이 통일 이후에 말미에 기재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는 고대일본에도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대보율령을 계기로 일시로 변화하는 한편 신라에서는 9세기 이후에 점차 변화해 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율령제도 수용 태도에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라 문서목간은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11점에 불과하며 본고는 한정된 자료에 보이는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

목간의 연구 성과를 너무 중시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여 다양한 자료와 같이 검토하여 보충해 나갈 생각이다.

[부기 : 투고 후 이경섭, 「신라 문서목간의 話者와 書者」, 『신라사학보』 51, 2021 가 출간되었다. 검토대상은 같지만 각 목간의 내용 이해나 분석 시각, 결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간Ⅱ』, 20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垓子發掘調査報告書Ⅱ－考察』, 200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201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 2004.

-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奈良文化財研究所, 『藤原宮木簡四 解説』, 2019.  
馬場基, 『日本古代木簡論』, 吉川弘文館, 2018.  
富谷至, 『文書行政の漢帝國—木簡·竹簡の時代』,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市大樹,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岸俊男, 『日本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 1988.  
早川庄八, 『日本古代の文書と典籍』, 吉川弘文館, 1997.

### 2. 논문

- 백두현,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 2018.  
市大樹, 「일본 7세기 목간에 보이는 한국목간」, 『목간과 문자』 22, 2019.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윤선태,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2008.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2018.  
윤선태, 「한국 다면목간의 발굴 현황과 용도」, 『목간과 문자』 23, 2019.  
이경섭,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7, 2020.  
이영호, 「月城垓子 2號 木簡에 보이는 尊稱語 ‘足下’에 대하여」, 『영남학』 71, 2019.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 가야5598의 검토」, 『목간과 문자』 23, 2019.  
전경효,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0, 2018.



- 전경효, 「경주 월성 해자 출토 삼면목간 소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사업단 제2회 국제학술대회『木簡을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유통과 관리』자료집, 2021.
- 하시모토 시게루, 「雁鴨池木簡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 2007.
- 하시모토 시게루, 「한국에서 출토된 '논어'목간의 형태와 용도」,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하시모토 시게루, 「중고기신라 축성비의 연구」, 『동국사학』 55, 2013.
- 하시모토 시게루, 「시각목간(視覺木簡)의 정치성」, 韓國木簡學會 편 『문자와 고대 한국1 기록과 지배』, 주류성, 2019.
- 하시모토 시게루,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및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0, 2020a.
- 하시모토 시게루, 「월성해자 신 출토 목간과 신라 外位」, 『목간과 문자』 24, 2020b.
- 橋本繁, 「浦項中城里碑の研究」, 『朝鮮學報』 220, 2011.
- 橋本繁, 「戊戌塙作碑釋文의再檢討」,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94, 2015.
- 橋本繁, 「蔚珍鳳坪里碑의再檢討」, 『東洋文化研究』 20, 2018a.
- 橋本繁, 「蔚州川前里書石原銘·追銘にみる新羅王權と王京六部」, 『史滴』 40, 2018b.
- 橋本繁, 「朝鮮半島古代の石碑文化」, 小倉慈司·三上喜孝 편 『古代日本と朝鮮の石碑文化』, 朝倉書店, 2018c
- 橋本繁, 「六世紀新羅における識字の広がり」, 榎本淳一 기타편 『中國學術の東アジア傳播と古代日本』, 勉誠出版, 2020.
- 大隅清陽, 「大化改新論の現在—律令制研究の視角から」, 『日本歴史』 700, 2006.
- 大隅清陽, 「大寶律令の歴史的位相」, 大津透 편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 大隅清陽, 「これからの律令制研究—その課題と展望」, 『九州史學』 154, 2010.
- 渡辺晃宏, 「木簡から万葉の世紀を読む」, 『奈良時代の歌びと』, 高岡市万葉歴史館叢書20, 2008.
- 市大樹, 「物品進上札と貢進荷札」, 藤田勝久·松原弘宣 편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汲古書院, 2011.

- 市大樹, 「日本古代木簡の視覚機能」, 角谷常子 편 『東アジア木簡學のために』, 汲古書院, 2014.
- 市大樹, 「黎明期の日本古代木簡」,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94, 2015.
- 市大樹, 「木簡の視覚機能という考え方」, 『古代文化』 70-3, 2018.
- 李成市,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1997.
- 李成市, 「韓國木簡研究の現在—新羅木簡研究の成果を中心に」, 工藤元男·李成市 편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2009.
- 早川庄八, 「公式様文書と文書木簡」, 『木簡研究』 7, 1985.
- 鐘江宏之, 「口頭傳達と文書・記録」, 『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6 言語と文字』, 岩波書店, 2006.
- 鐘江宏之, 「「日本の七世紀史」再考—遣唐使から大寶律令まで」, 『學習院史學』 49, 2011.
- 川尻秋生, 「使者と文書」, 新川登龜男 편 『日本古代史の方法と意義』, 勉誠出版, 2018.

Abstract

## A Basic Review on the document wooden tablets of Silla

Hashimoto, Shigeru

This paper reviews document wooden tablets of Silla. The term ‘document’ in the broad sense are documents, records and letters prepared by various government offices, but here we deal with the document in the narrow sense on which the sender and receiver are written.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s in document wooden tablets of Silla, it is important to compare with those of ancient Japan, such as Jeonbaek mokkan.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the text and contents of the wooden tablets recently unearthed at the moat of the Wolseong Palace. The contents of the three-sided wooden tablet were that a ‘Dangju’, local government official, sent grain to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capital, and it is presumed that ‘Sobaekin’ came to the capital and reported it.

The document wooden tablets of Silla were, just like Japanese Jeonbaek mokkan, presumed to be related to oral communication and mainly used as report to higher officials. At the same time,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sender and date are written on Silla's document, but not on Japanese ones. The shape of Japanese documents are tabular, while Silla's ones are

cylindrical or polyhedrons. It is likely that these morphological features were designed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at they were documents. In particular, large ones are assumed to have served as passes.

‘Muncheok’ who wrote a wooden tablet of the moat of the Wolseong Palace is same as the government post found in the stone monuments of Namsansinseong fortress, indicating that local residents wer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documents widely in the provinces. And a comparison betwee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Unification Period reveals a change in the method of date marking. Such a change can be confirmed in ancient Japan too,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ppearance of the change. Such difference is presumed to be due to differences in the method of introducing the political system of China.

**keywords :**

document wooden tablets, the moat of the Wolseong Palace(月城垓子), Jeonbaek mokkan(前白木簡), visual function, writer, document format